

## 뇌과학적 관점에서 본 감정과 고전문학\*

황혜진\*\*

〈차례〉

1. 서론
2. 감정의 기초로서 몸
3. 지력을 가진 감정
4. 감정과 문화, 그리고 고전문학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감정에 대한 기존의 통념, 즉 감정은 본능적이며 이성보다 열등하고, 보편적이고 고정된 반응이라는 견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감정을 ‘물질[신체] 기반의 구성된 개념’으로 재정의하는 시도를 하였다.

감정은 뇌와 신체가 상호작용하여 정동을 해석하는 인지적 과정의 산물이다. 뇌는 생존을 위해 신체 예산을 관리하며, 감각 정보를 시뮬레이션하고 과거의 경험을 통계적으로 참조하여 정동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때 감정은 정동을 해석하는 개념이 되며, 이 개념은 문화, 언어, 학습에 의해 구성된다. 따라서 감정은 선천적인 반사적 반응이 아니라 후천적이고 학습가능한 구조물이다.

또한, 이 연구는 마사 누스바움의 감정 철학을 바탕으로, 감정이 가치 판단과 평가를 포함하는 지적 작용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감정과 이성의 대립 구도를 재검토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기반 위에서 박지원의 산문과 판소리문학을 분석함으로써, 고전문학이 감정을 정교하게 언어화하고, 감정 개념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훈련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보였다.

박지원의 문학은 감정 개념의 작동 방식을 뇌과학 이론보다 선취하였으며, 판소

\* 이 글은 2025년도 2월 18일, 제129차 한국고전연구학회에서 발표한 ‘물질로서의 인간과 감정, 그리고 고전문학’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리문학은 감정을 다층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감정 입자도를 높이고, 청중과의 감정적 상호작용을 유도해왔다. 또한, 고전문학은 마스터플롯 역할을 하며 개인과 집단의 세계 모형을 만들고 공유된 개념으로 공통적 감정을 구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주제어** 구성된 감정, 감정과 신체, 감정과 이성, 감정과 문화, 감정 입자도, 감정교육

## 1. 서론

감정은 오랫동안 본능적인 반응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이성의 통제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되곤 했다. 그러나 최근의 감정 이론, 특히 뇌과학과 인지과학의 성장은 이러한 전통적 관점을 뒤흔들고 있다. 감정은 이제 신체 변화와 뇌의 예측 및 시뮬레이션 기능을 기반으로 구성되는 개념으로 이해되며, 감정과 이성은 대립되는 항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교차하는 인지적 작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25년 한국고전연구학회의 기획 주제인 “물질로서의 인간과 감정, 그리고 고전문학”은 이러한 인식 전환을 반영한다. 학회는 감정을 둘러싼 철학적·인지과학적·문예학적 질문들을 제기하며, 감정의 본질, 감정과 이성의 관계, 감정의 사회적 구성 가능성, 그리고 문학과 감정의 상호작용에 대해 재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sup>1)</sup>

1) 다음은 기획 주제인 ‘물질로서의 인간과 감정, 그리고 고전문학’에 대한 학회의 안내 문이다. “① 감정이 이성보다 열등하다거나 이성으로 보완되어야 할 요소라는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② 최근의 감정 이론들은 감정의 즉각성과 학습가능성을 두루 고려하면서 ③ 감정이 인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형성과 유지, 변화에 깊숙이 관여하는 중차대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④ 특히 감정이 신체를 핵심 기반으로 삼아 정신과 환경을 가로지르며 운동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음을 재인식할 때, 우리는 ‘물질로서의 감정’ 내지 ‘감정의 물질성’에도 새로 주목해 볼 수 있다. ⑤ 인류 역사에서 문학은 언제나 감정을 다루는 최첨단 양식을 맡아 왔다. 그렇다면 문학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탐구 역시 늘 첨단에 서기를 주저치 말아야 할 것이다.

기획 주제에 대해 안내하면서 학회는 몇 가지 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기획에 대한 답변으로 마련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제를 주요 내용 삼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안내문에서 제시한 논제들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감정은 이성에 비해 열등한가?
- ② 감정은 선천적인 것인가, 문화적이며 학습 가능한 후천적인 것인가?
- ③ 개별적이고 내밀한 감정이 어떻게 사회의 형성과 유지, 변화에 관여하는가?
- ④ 감정의 기초는 물질적인 것인가, 정신적인 것인가?
- ⑤ 문학은 과연 감정을 다루는 최첨단 양식인가?
- ⑥ 문학은 감정을 어떻게 다루며,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감정은 어떻게 개인과 사회를 움직이는가?

각각의 논제 자체가 상당히 묵직하고 철학적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자가 깊이 있고 정통한 견해를 밝히긴 어렵다. 다만, 해당 논제에 대한 철학적, 인지과학적, 뇌과학적 논의를 공유하면서 감정에 대한 문예학적 논의가 가능한 지점들을 짚어내고 감정에 대한 새로운 문예학적 해석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논제를 모두 다루되, 논문의 구성적 요구에 따라 순서를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물질로서의 인간과 감정’과 관련된 ④ ‘감정의 물질적 기초’를 다루고, ① ‘감정과 이성의 관계’를 논한 뒤, ②와 ③의 ‘감정의 사회적 구성성’과 ⑤, ⑥의 ‘감정을 형상화하는 문학의 기능’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한편, 감정에 대한 이론을 고전문학에 접목시키는 역할도 연구자의 몫이

---

⑥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동시대의 갱신된 감정 담론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고전문학 텍스트들 안팎에서 다종다기한 감정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개입하고, 작용하면서, 역력한 효과를 발휘해 왔는지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본다.”(번호는 필자)

다. 감정에 대한 심도 있는 인식을 한 인물로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1737-1805)을 꼽을 수 있다. 박지원은 문학자인 동시에 감정에 대한 이론가이기도 하다. 우리가 감정에 대한 인식적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만한 이론을 문학적 형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논의가 허여하는 한 박지원의 글을 인용하며, ‘그리고 고전문학’이라는 질문에 화답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음탕 교과서’, ‘처량 교과서’라 비난을 받기도 했던<sup>2)</sup> 판소리문학을 자료로 활용하겠다. 판소리문학은 청중과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감정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했으며, 청중을 감정적으로 격동시켜 인기를 끌었기에 적절한 자료가 될 것이다.

‘물질로서의 인간과 감정, 그리고 고전문학’이란 화두에 따른 이 연구는, 감정의 기초로서 물질적 토대인 몸에 대해 다루며(2장), 오래된 갈등인 감정과 이성의 문제에 대해 검토한 뒤,(3장) 감정이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른 표현과 해석의 방식을 지닌 문화적 산물임을 밝히고, 감정교육을 담당하는 문학의 역할을 논하도록 하겠다.(4장)

## 2. 감정의 기초로서 몸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sup>3)</sup>이란 짧은 시가 있다. 비정상적으로 뛰는 심장의 상태를 두근거리는 사랑의 감정으로 잘못 해석한 상황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뇌과학자인 배럿도 감기에 걸린 줄 모르고 소개팅에 나갔다가 몸이 달떴던 경험을 호감으로 ‘잘못’ 해석한 적이 있다 고백했다.<sup>4)</sup>

2) 이해조, 『자유종』, 권영민 외 편, 『한국신소설선집』 5,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192쪽.

3) 이는 시 전문(全文)으로 매우 짧은 시인 일본의 센류 갈래에 속한다. 사단법인 전국 유료실버타운협회, 포푸리사 편저, 이지수 역,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노인들의 일상을 유쾌하게 담다』, 포레스트북스, 2024.

4) 리사 펠드먼 배럿, 최호영 역,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생각연구소, 2017.

이는 몸의 변화가 감정을 만들어냄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뇌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신체의 일부이자 감정의 물적 토대이기도 하다. 우리는 뇌과학의 발전에 따라 감정의 물적 토대에 대한 이해를 축적하면서 감정이 생성되는 다양한 경로를 상정하게 되었으며, 뇌뿐 아니라 몸 전체가, 감정의 핵심 재료가 되는 정동에 관여함을 새로이 알 수 있게 되었다.

이하의 내용은 배럿의 ‘구성된 감정 이론(theory of constructed emotion)<sup>5)</sup>에 따라 감정이 뇌를 비롯한 몸을 통해 만들어지는 방식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먼저 뇌의 목표는 에너지가 언제 필요한지 예측함으로써 가치 있는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해내도록 신체를 제어하는 것임을 이해하자. 즉, 뇌는 필요한 힘을 적절히 쓰기 위해 ‘신체 예산(body budget)’을 관리한다.

‘곰 난제(bear conundrum)’는 심장이 떨리는 것과 같은 신체의 생리적 변화가 감정에 대한 인식을 주도함을 설명하는 사례이다. 숲속에서 우연히 곰을 만난다. 앞뒤 따질 것도 없이 곰을 피해 달리기 시작한다. 이때 무서움을 느꼈다 하자. 우리는 무서워 달린 것인가, 아니면 달리기 때문에 무서움을 느끼는가? 제임스-랑게 이론에 따르면 후자가 옳다.<sup>6)</sup>

이 사례를 ‘구성된 감정 이론’으로 이해해 보자. 우리의 뇌는 숲길에 갑자기 출현한 곰에 대한 시각 신호를 바탕으로, 곰에 대해 시뮬레이션(simulation)<sup>7)</sup>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한다. 뇌가 감각 입력을 시뮬레이션할 때마다 신체 예산을 운용하기 위한 변화를 준비시키는데 이 과정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자동적이라 우리는 이를 반사 반응처럼 여긴다.

5) 리사 펠드먼 배럿(2017), 위의 책.

6) 그레고리 번스, 홍우진 역, 『나라는 착각』, 흐름출판, 2024, 89~91쪽.

7) 시뮬레이션은 뇌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추측하는 과정으로, (리사 펠드먼 배럿(2017), 위의 책, 74쪽)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는 것은 세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반사 반응이 아니다. 정교한 우리 뇌는 꿈에 대한 시각 신호와 더불어 위협적 맹수가 쫓아오는 직간접적 경험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작동시켰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고 교감신경계를 흥분시켜, 가슴이 철렁하며 동공은 커지고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며 식은땀이 나고 소름이 돋게 하였다.

신체 예산이 투여되는 이러한 몸의 변화는 ‘정동(情動, affect)’으로 전해지며, 그러한 느낌을 ‘해석한 결과, 우리는 ‘걸음아, 날 살려라’라는 마음으로 냅다 뛰거나 그대로 얼어붙어 버린다. 이렇게 꿈에 대한 시각 신호가 입력되자마자 무의식계에서 실행되는 뇌의 시뮬레이션과 예측은 우리를 느끼게 하고 그 느낌을 해석해 행동하게 한 것이다.

앞서 제임스-랑게 이론에 따르면, 꿈을 보고 도망치다가 그 신체 반응을 느끼며 무서움이나 공포 감정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나 배럿은 뇌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하고 그에 따라 우리 몸을 준비시켰으며, 이런 몸의 변화를 특정 개념으로 해석한 결과로 감정이 구성되는 것이라 설명한다.

이렇게 배럿은 몸의 변화 이전에 경험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신체 상태의 변화에서 비롯된 정동을 감정 개념으로 해석하는 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제임스-랑게 이론과 같이 신체 반응으로 생성된 정동이 감정의 소재가 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반사적으로 보이는 행동에 뇌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고 감정을 형성하는지 보다 정교하게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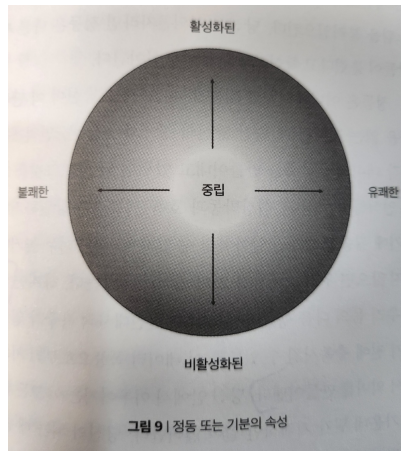
한편, 한정된 예산(에너지)을 주어진 생존 과업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뇌의 목표라고 하면, 꿈의 출현과 같은 신체 외부의 자극에 대해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외부 자극 없이 발생하는 신체 내부의 변화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 그래서 뇌는 신체 내부의 움직임에서 생기는 감각에 대해 판단하는 ‘내수용 신경망(introceptive network)’을 구축하였다.

내수용 신경망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몸 안에서 신체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몸 안의 감각을 표상하는 것이다. 몸 안의 신체 예산 관리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도 이루어지기도 한다. 간의 담즙 분비량이나,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등 화학적 신경전달물질의 생성과 작용 따위는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 몸 안에서 절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우리의 신경망은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체 예산의 관리에 대한 감각을 정밀하게 느끼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내수용이 변화할 때 신체 내부의 감각은 대체적인 요약으로 우리에게 표상되는데 그것이 바로 정동이다. 정동은 유인성(誘引性, valence)과 흥분도(arousal)를 갖는데, 이러한 정동은 쾌와 불쾌, 동요와 평온의 양극 사이에서 움직인다.

가령, 갑자기 배에 쿡쿡 찌르는 듯 상당히 아픈 느낌이 있다고 하자. 이는 ‘유인성’으로 불쾌하며, ‘흥분도’로 강렬한 느낌이다. 이 정동은 ‘불쾌’하며 ‘동요’하는 어느 지점의 좌표로 기록되며, 우리의 의식에 신체 내부 감각의 변화로 표상된다. 그런데 요약적 표상은 정밀하지 않아 우리의 뇌는 이에 대해 해석하고 설명해야 한다.



〈그림 1〉 정동 또는 기분의 속성 (출처: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155면.)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개념’이다. 뇌는 개념을 통해 가변적이고 모

호한 정동과 같은 감각 신호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어디서 왔으며, 세계에 있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설명을 만들어낸다. 개념은 범주의 가장 대표적인 예, 즉 ‘원형(prototype)’으로 표상되며, 목표에 맞게 순식간에 구성되고 유연하게 변용된다고 한다.

모호한 정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이 정교할수록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감정 개념이다. 감정 개념은 정동에 의미를 만들어내는 힘을 갖는다. 신체 감각의 변화로 생긴 불쾌하고 급작스러운 정동에 감정 개념을 부여할 때 우리는 정동 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빠르고 적절하게 취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예시를 들어 가장 쉽게 설명한 이는 박지원이 아닐까 한다. 다음 인용을 살펴 보자.

우사단(雩祀壇) 아래 도저동(桃渚洞)에 푸른 기와로 이은 사당이 있고, 그 안에 얼굴이 붉고 수염을 길게 드리운 이가 모셔져 있으니 영락없는 관운장(關雲長)이다. 학질(瘡疾)을 앓는 남녀들을 그 좌상(座牀) 밑에 들여보내면 정신이 놀라고 뉘이 나가 추위에 떠는 증세가 달아나고 만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무서움도 없이 그 위엄스러운 소상(塑像)에게 무례한 짓을 하는데, 그 눈동자를 후벼도 눈을 깜짝이지 않고 코를 쑤셔도 재채기를 하지 않는다. 그저 덩그러니 앉아 있는 소상에 불과한 것이다.

-박지원, <영처고서(嬰處稿序)><sup>8)</sup>

위 인용문에서 추위에 떠는 ‘학질 병자’들이 관운장 소상을 보고 병증이 사라진 이유는 관운장에 대한 공포가 신체 내부 감각의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두려운 것이 나타난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뇌의 예측이 두려운 대상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한 몸 상태를 만들었는데, 이로 인한 부수적 효과로 추위에 떨던 병세가 호전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그런 효과가 없었다. 그들은 관운장의 위엄과 힘에 대한 경험과 개념이 없는 ‘경험맹(experiential blindness)’의 상태였기 때

8) 박지원, <영처고서(嬰處稿序)>, 신호열·김명호 역, 『연암집』 7, 2004,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문이다. 이들과 달리, 성인들은 관운장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것처럼 위엄 있고 두려운 인물을 눈앞에서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으며 바로 몸을 변화시켰다.

성인과 아이들의 차이는 관운장과 관련된 ‘경험’과 ‘개념’의 유무이다. 성인의 경우, 경험에 기반한 시뮬레이션은 소상에 불과한 관운장을 보고 놀라 호르몬 분비와 교감 신경 활성화를 통해 몸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시켰으며, 그 결과 형성된 정동을 공포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게끔 하였다. 그러나 관운장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처리할 개념이 없던 아이들은 관운장 소상을 놀잇감으로 여길 뿐이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은 이미 수많은 경험 사례를 통해 형성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패턴으로,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처리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수많은 사례들로 구성된 이 개념을 통해 감정이 만들어지며, 감정 자체도 개념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반응과 행동을 빚어낸다. 아래 인용문은 감정을 비롯한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약한다.

감정은 세계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당신은 감각 입력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당신 감정의 능동적 구성자이다. 당신의 뇌는 감각 입력과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행동을 지시한다. 만약 당신에게 과거 경험을 표상하는 개념이 없다면, 당신의 모든 감각 입력은 잡음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이런 감각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무엇으로 인해 야기됐으며, 이것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을 것이다. 반면에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의 뇌는 감각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 의미가 때로는 감정인 것이다.<sup>9)</sup>

9) 리사 펠드먼 배릿(2017), 앞의 책, 81쪽.

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감정을 만드는 능동적 구성자라는 사실이다. 개념의 기초가 되는 과거 경험도 결국 우리의 판단과 선택이 만들어낸 것이며,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완고한 개념을 형성하여 새로운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 다음 인용은 무의식적인 개념 작용에 대한 통찰을 담고 우리의 성찰을 촉구한다.

달관한 사람[達士]에게는 괴이한 것이 없으나 속인들에게는 의심스러운 것이 많다. 이른바 ‘본 것이 적으면 괴이하게 여기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 본 것이 적은 자는 해오라기를 기준으로 까마귀를 비웃고 오리를 기준으로 학을 위태롭다고 여기니, 그 사물 자체는 본디 괴이할 것이 없는데 자기 혼자 화를 내고, 한 가지 일이라도 자기 생각과 같지 않으면 만물을 모조리 모함하려 든다.

아, 저 까마귀를 보라. 그 깃털보다 더 검은 것이 없건만, 홀연 유금(乳金) 빛이 번지기도 하고 다시 석록(石綠) 빛을 반짝이기도 하며, 해가 비추면 자줏빛이 튀어 올라 눈이 어른거리다가 비춧빛으로 바뀐다. 그렇다면 내가 그 새를 ‘푸른 까마귀라 불러도 될 것이고, ‘붉은 까마귀라 불러도 될 것이다. 그 새에게는 본래 일정한 빛깔이 없거늘, 내가 눈으로써 먼저 그 빛깔을 정한 것이다. 어찌 단지 눈으로만 정했으리오 보지 않고서 먼저 그 마음으로 정한 것이다.

-박지원, <능양시집서(菱洋詩集序)><sup>10)</sup>

우리의 마음은 까마귀처럼 생긴 개체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범주화하는 개념을 생성해 ‘까마귀’를 정하였다. 까마귀의 원형을 마음에 간직하며 까마귀는 검다, 색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개념을 정해 까마귀를 보니 까마귀는 계속 검게만 보인다. 이러한 뇌과학적 원리에 따라 박지원은 까마귀를 검다고 보는 것이 “마음으로 정한 것”이라 하였다.

10) 박지원, <능양시집서(菱洋詩集序)>, 신호열·김명호 역, 『연암집』 7, 2004,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이렇게 우리의 시각은 세상을 향한 투명한 창이 아니라 시각 신호를 뇌가 개념으로 해석해 만든 정교한 환상이다. 이를 통찰한 박지원은 까마귀를 검다고만 여기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속인(俗人)이라 칭하며, 이들과 달리 본래 일정한 빛깔이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또한 홀연 비치는 빛깔에 대해 스스로 색을 규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달사(達士)라 불렀다.

달사는 믿는 대로 보이는 원리를 파악하고, 개념이 경험의 의미를 만들 어냄을 깨달은 존재이다. 또한 이들은 개념을 갱신해 줄 새로운 경험과 학습에 열려 있으며, 만들어진 개념을 마르고 닳도록 쓰기보다는 새로운 사 태에 대해 기존의 개념을 유연하게 변형하거나 새로이 생성하고, 마구잡이로 범주화하는 개념의 작용을 성찰하려 한다.

속인은 자기 안의 개념이 사물을 보게 한다는 의식을 하지 못해 사물을 보고 괴이쩍다, 즉 자기 개념에 맞지 않는다고 화를 냈다. 감정을 외부 사태가 촉발했다고 여기는 것도 개념의 존재나 그 작용을 알지 못하고 성찰하지 않는 속인의 상식이다. 보고 경험한 것이 적어 험애한 개념을 갖게 된 것은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지 않고 배우지 않으려 한 우리의 책임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도 대상이 촉발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든 것이다. 정동에 대한 해석이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이루어질 정도로 자동화되었기에 우리는 원래 있었던 내면의 감정이 ‘촉발된’ 것이라 착각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이미 배선된 개념 체계의 일부로, 당면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정동 해석을 위해 ‘동원된’ 것이다. 즉, 우리의 감정은 생겨난 것이 아니라 개념으로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물질로서의 감정’, ‘감정의 물질성’에 대해 논하였다. 감정의 물질적 토대는 바로 뇌를 포함한 몸이다. 신체 내외의 자극에서 비롯된 몸의 느낌, 즉 정동을 해석하기 위해 우리는 감정 개념을 동원하기도 한다. 그런데 개념은 특정 목적에 비추어 비슷한 것으로 취급되는 경험 사례들을 찾고 분류하고 추상화한 것이기에 감정은 이미 인지적 속성을 갖는다 할

것이다.

이렇게 감정이 신체적 정동을 동력으로 생성되지만, 정동을 개념적으로 분류하고 해석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감정 자체에 인지가 갈마들어 있다고 한다면, 감정과 이성(혹은 인지 작용)을 나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감정과 이성의 관계에 대해 논하며, 감정의 기초가 인지임을 철학적 관점에서 논하도록 하겠다. 이하 논의를 통해 뇌과학적 성취와 철학적 통찰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3. 지력을 갖춘 감정

뇌과학 논의에서 많은 경우, 합리적 이성은 불신된다. 『‘나’라는 착각』의 첫 문장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망상이다.”이다. 이렇게 저자인 그레고리 번스는 데카르트 명제<sup>11)</sup>를 부정하며, 뇌과학을 바탕으로 이성적인 ‘나’라는 관념을 해체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르면, 오히려 ‘나’가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적이고 확고한 자아정체성이란 망상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sup>12)</sup>

감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 이해했다. 플라톤은 인간의 마음 속에 세 가지 내면의 힘들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첫 번째 힘은 식욕과 성욕 같은 본능이다. 두 번째 힘이 기쁨, 분노, 두려움과 같은 감정이다. 이들을 제압하는 것이 이성적 사고인데, 그 덕분에 우리는 야수 같은 본능과 감정을 순치해 문명과 도덕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다.<sup>13)</sup>

이런 관점에 대해 ‘구성된 감정 이론’은, 플라톤의 비유가 ‘삼위일체의 뇌’라는 잘못된 대중적 믿음을 만들어내었다고 비난한다. 또한 본능이나

11) 데카르트는 의심이 생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쳐놓는 방법적 회의를 거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를 도출하였다.

12) 그레고리 번스(2024), 앞의 책.

13) 리사 펠드먼 배럿, 변지영 역,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더 퀘스트, 2021.

감정, 이성을 담당하는 영역이 따로 있지 않으며, 뇌의 관점에서 합리성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신체 예산을 잘 관리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감정은 본질적인 것으로서 내 안에 내장되어 있고, 가장 내밀한 것으로서 진정한 ‘나’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오해 역시 ‘구성된 감정 이론’으로써 불식된다. 감정은 실체를 지니지 않으며, ‘지금, 여기의 나’의 실존적 상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 사례를 검색하고 통계학적으로 선별하여 산출된 값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우울감의 원인이 장내 유해 세균일 수 있으며, 무력감도 운동이 부족한 탓일 수 있다. 이렇게 감정은 몸의 상태에 큰 영향을 받는다. 뇌과학에서는 감정이 내수용 신경망에 의해 몸속의 알람처럼 전해진 정동을 해석한 결과이며, 이전 경험들을 참조하여 통계학적으로 선별되지만, 일시적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언제든 폐기되고 변형될 운명이라고 하였다.

비록 감정이 일시적으로 구성되며 쉬 사라질 숙명을 갖는다 해도 감정을 개념의 일종이라 하면 감정은 인지적 속성을 갖는다 할 것이다. 누스바움이 쓴 감정 철학서의 원제는 “Upheavals of Thought: The Intelligence of Emotion”인데, 이 역시 생각의 격동이 감정을 일으킨다는 의미에서 감정의 인지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누스바움은 “감정은 가늠(appraisal) 또는 가치에 대한 판단으로,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사물과 사람이 나의 훌륭한 삶에 큰 중요성을 가진 것”<sup>14)</sup>이라는 스토아학파의 견해에 따라, 감정을 “나 자신의 안녕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외적인(즉 통제 불가능한) 것과 관련해 현재의 사태를 등록하는 나만의 방식”<sup>15)</sup>이라 규정한다.

누스바움은 문학 작품을 인용하여 감정이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

14) 마샤 누스바움, 조형준 역, 『감정의 격동』, 새물결, 2015, 30쪽.

15) 마샤 누스바움(2015), 위의 책, 30쪽.

마음의 격동이 사를뤼스 씨의 정신을 얼마나 동요시키며, 또 그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의 정신 활동을 풍요롭게 했는지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이처럼 사랑은 참으로 상념의 지형학적 용기를 일으킨다. 사를뤼스 씨의 정신은 며칠 전만 해도 매우 평탄한 벌판과 비슷해 아주 멀리 지면과 같은 높이에 한 덩어리의 관념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난데없이 바위처럼 단단한 산악지대가, 어떤 조각가가 거기로 대리석을 나르러 가는 대신 그 자리에서 끝로 새기기라도 한 듯 분노, 질투, 호기, 부러움, 미움, 괴로움, 거만, 공포와 사랑의 거대하고도 거창한 군상으로 꿈틀대는 산악지대가 우뚝 서 있었다.

- 마르셀 프루스트, 『소품과 고모라』<sup>16)</sup>

‘인간 존재에 대한 몇몇 진실은 오직 문학 형태로만 이야기될 수 있다’<sup>17)</sup>는 견해에 따를 때 위 인용문은 감정에 대한 인간적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사랑스런 대상의 출현은 한 남성의 내면세계를 평지에서 산악지대로 변화시켰다. 또한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하다는 기쁨과 나의 좋은 삶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다양한 감정이 발생하였다.

이를 구성된 감정 이론으로 이해해 보자. 위 인용문에서 ‘상념의 지형’은 우리가 그간 익숙해진 세계에 대한 모형을 말한다. 그 세계에 새로운 대상이 등장하여 새로운 배선이 깔리고 그에 따른 세계 모형이 달라지는 대공사가 일어났다. 이로 인한 변화는 평지가 바위산으로 바뀔 만큼의 지형학적 격변이다.

뇌는 변화에 주목한다.<sup>18)</sup> 누스바움도 감정이 ‘새로운 사태를 자기만의

16) 마사 누스바움(2015), 위의 책, 21쪽 재인용.

17) 위 인용문은 프루스트의 소설 화자의 말로, 누스바움은 이에 동의하며 문학작품의 중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마사 누스바움(2015), 위의 책, 28쪽.

18) 다음과 같은 설명을 통해 변화를 감지하는 뇌의 기능을 알 수 있다. “거의 모든 지각은 변화를 감지하는 데서 시작한다. 우리의 지각체계는 사실상 변화가 감지되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는다.” 윌 스트, 문희경 역, 『이야기의 탄생』, 흐름출판, 2020, 30쪽.

방식으로 등록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연인의 등장은 새로운 사태이다. 우리가 맹수인 꿈에 대한 개념을 미리 가졌기에 꿈이 나타나자 달아나기 위한 태세를 갖추 수 있었듯이, 연인과 관련된 개념이 미리 형성되었기에 '첫눈에' 알아본 연인을 포함하는 세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실행되고, 신체 내부의 변화가 초래되었다.

그로부터 발생한 정동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감정 개념으로 해석된다. 사랑의 감정 개념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지형적 세계를 내면에 구성하게 된다. 한편, 사랑이라 이름붙인 범주[개념]는 분노, 질투, 호기, 부러움, 미움, 괴로움, 거만, 공포, 사랑이라는 개별적 사례를 포괄한다.

때로 화가 나고 질투하는 것도 사랑이요, 연인 앞에서 우쭐대거나, 그와 헤어짐을 상상하며 느끼는 공포도 사랑이다. 이렇게 사랑의 감정 범주에는 다양한 감정의 개별 사례가 있다. 배렷은 문화적으로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감정은 없으며, 한 사람이라도 같은 감정을 다른 사례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위 인용문에서 다채로운 감정들을 '사랑의 거대하고도 거창한 군상'이라는 범주화한 것은 감정이 일종의 범주명처럼 존재하며, 그 범주 안에 수많은 개별 사례들을 포함한다는 뇌과학적 연구 결과를 문학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우리는 평지와 산악지대라는 비유적 표현에도 주목해 볼 수 있다.

새로운 사태에 대해 우리 뇌는 당면한 목표에 따라 이전의 경험을 검색하며, 개념을 찾고 개념들을 조합해 정동을 해석한다. 앞서 인용문에서 남자는 아무런 '개념'도 없었던 허허벌판과 같던 경험맹의 상태에서,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에 온갖 정동이 발생하여 이를 의미화할 감정 개념들이 마치 뻑뻑한 기암괴석처럼 솟아오른 듯한 심리적 장소로 옮겨갔다.

사랑 개념이 발생하자 '산맥이 바다를 향해 휘달리는 듯' 극적으로 세계 모형이 변모한 것이다. 이는 내 안녕과 행복에 절실히 필요한 소중한 대상

의 출현으로 인해 정동이 발생하고 이를 해석할 감정 개념이 형성되어 생긴 변화이다. 그런데 급작스러운 세계 모형의 변화는 감정을 격동시키며 마치 장님이 눈을 뜬 것 같은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저의 나라에 서화담 선생(徐花潭先生)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길에서 우는 자를 만나 네 어찌 우느냐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내가 세 살에 소경이 되어 이제 40년이 되었는데, 전일에는 걸음을 걸을 때는 발을 의지해서 보고, 물건을 잡을 때는 손을 의지해서 보고 성음(聲音)을 들어 누구인지 분별하니 귀를 의지해서 보고, 냄새를 맡아 무슨 물건인지 살피니 코를 의지해서 보았습니다. 판 사람들은 두 눈만 가졌지만 나는 손과 발과 코와 귀가 모두 눈 아닌 것이 없습니다. 또한 하필이면 수족과 귀와 코뿐이겠습니까. 해가 이르고 늦은 것을 낮에 피로한 것으로 보고, 물건의 형용과 빛깔을 밤에 꿈으로 봅니다. 아무런 장애도 없고 일찍이 의심과 혼란이 없었는데, 이제 길을 걸어오다가 홀연히 두 눈이 맑아지고 동자가 스스로 열려 천지가 넓고 크며, 산천이 요란하게 영겼고 만물이 눈을 가리고 모든 의심이 가슴을 막아서, 수족과 귀와 코는 착각을 일으키고 전도(顛倒)되어서 모두 뿔뿔한 것을 잃고 보니, 묘연(渺然)히 우리 집조차 잊어버려서 돌아갈 수가 없으므로 읍니다.’ 하더랍니다. 화담 선생은 말하기를, ‘네가 네 길잡이에게 물어보면 길잡이가 응당 스스로 알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는 말하기를, ‘내 눈이 이미 밝았으니 길잡이에게 물으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니 선생은 말하기를, ‘도로 네 눈을 감으면 너가 서 있는 곳이 곧 네 집일 것이다.’ 했으니, 이로써 논한다면, 눈이란 그 밝은 것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오늘 요술을 구경하는 데도 요술쟁이가 눈속임을 해서 속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는 자가 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박지원, <환희기후지(幻戲記後識)>19)

너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지하기 전에 예측하고 행동을 개시하도록 배

19) 박지원, <환희기후지(幻戲記後識)>, 이가원 역, 『열하일기』, 1968,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선되어 있다.<sup>20)</sup> 소경은 40년 동안 시각 대신 촉각, 청각, 후각의 감각 중심으로 배선된 신경망을 통해 세계의 모형을 만들고 개념을 형성하였다. 그러다 시각 개념이 없는 이에게 시각 신호가 휘몰아치듯 들어오니 배선판의 회로가 엉망진창 되어버려 집도 찾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사례는 새로운 감정적 사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혼란과 당혹감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 감정은 “불, 조류, 강풍처럼 안으로 침범해 들어와 자아를 거칠게 내던지며 폭발하도록 만들며, 갈기리 찢어발기며 산산조각 내는 힘”<sup>21)</sup>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소경이 눈을 뜨자마자 처음 느낀 충격도 이와 유사할 것이다.

눈을 뜬 소경은 서화담의 조연대로 도로 눈을 감고 평생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시각 신호를 처리하는 신경망을 조금씩 구축하고 이전에 다른 감각들이 담당했던 역할을 변화시키며, 점차 너른 천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요란하게 엮힌 산천을 풀어내어 보았을 게다. 그러나 감정의 문제는 내부 신경망의 변화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감정 문제는 주로 내 안녕과 행복에 연결된 외부의 사태이자, 내가 통제하지 못하지만 내게 중요하다라는 외적 대상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외적이란 말은 내 밖에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내 통제를 벗어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감정에는 우리가 외적 대상에 취약하고, 그것을 완전하게 통제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인용문은 이런 내용을 요약한다.

(감정은) 내게 중요한 것(value)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 이 판단 속에서 우리는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이 나의 안녕을 위해 중대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내 맘대로 어찌지 못하는 세계의 여러 부분 앞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식한다.<sup>22)</sup>

20) 리사 펠드먼 배럿(2021), 앞의 책, 116쪽.

21) 마샤 누스바움(2015), 앞의 책, 169쪽 재인용.

감정은 개념의 일종이지만 특별히 외적 대상을 갖는다. 그 대상은 ‘나’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내 정체성의 일부를 이룰 만큼 나에게 소중하다. 외적 대상이 나에게 소중한 까닭은 내가 기획하는 좋은 삶과 관련된 관계적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다. 이렇게 감정 개념에는 지향적 대상과 좋은 삶에 대한 판단 등을 포함되어 있기에 다른 개념들보다 우리를 격동시킨다.

이 장에서는 ‘감정이 이성보다 열등한가?’라는 질문에 답하려 하였다. 결론적으로 감정은 이미 충분히 지적이라 할 수 있다. 감정은 정동의 해석을 위한 일종의 개념 역할을 하기에 인지적이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감정에는 나의 좋은 삶과 관련해 소중한 것에 대한 기쁨과 판단이 내포되어 있다. 소위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행동이 감정 주체에게 의미있다는 뜻이다.

#### 4. 감정과 문화, 그리고 고전문학

1장에서 정동이 감정으로 해석된다 하였다. 정동을 해석하여 이름붙인 결과가 감정이라는 것이다. 해석에 불과한 감정은 보편적이지 않으며 특정 감정을 담당하는 신경회로 같은 것도 없다. 이러한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 배렷은 감정에는 지문이 없고 하였다. 번치 않는 지문처럼 확인할 수 있는 특정 감정의 신경 회로 따위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감정은 양육 환경과 학습 등 문화적 요인에 의해 구성되는 속성을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감정은 생래적 지문 대신 문화적 지문을 갖는 것이다. 감정이 문화적으로 구성된다는 인류학적 증거는 차고 넘친다.<sup>23)</sup> 정동을 분류하는 개념이 감정이라면, 무지개의 색을 분류하는 언어

22) 마사 누스바움(2015), 위의 책, 57쪽.

23) 그 사례로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마이크로네시아 제도의 이팔루크 족은 가족의

가 문화권마다 다른 만큼 감정도 다채로울 수 있다.

감정 언어도 그렇다. 독일어의 샤펜프로이데(schadenfreude)이란 말은 누군가의 불행에서 느끼는 쾌감을 뜻하며, 네덜란드에서 허젤러흐(gezellig)는 친한 사람들과 집에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 포근함, 단란함을 의미한다고 한다.<sup>24)</sup> 한국의 정이나 한도 다른 문화권에는 없는 감정 언어이다.

감정 개념들은 일종의 도구처럼 당면 목적을 위해 따로 혹은 같이 사용된다. 개념들을 조합해 내외의 사태에 대한 감정을 구성할 때 단어가 쓰이면 현실을 창조하는 막강한 힘이 생긴다.<sup>25)</sup> 그래서 배럿은 수많은 감정 개념을 언어로 구사하는 사람들을 ‘감정 입자도’<sup>26)</sup>가 높은 이들로 분류하며, 이들은 “능숙한 장인이 되는 데 필요한 거대한 연장통”<sup>27)</sup>을 보유했다 평한다.

이 연장통은 특정 문화권에서 유용하며, 연장통 안에 얼마나 많은 도구들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개인이 학습해 습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고전문학은 적어도 한국인들에게 감정 언어를 제공하여 감정 장인이 되는 연장통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교육 정전으로서 널리 활용되는 판소리문학이 특히 그러하다.

<춘향가>의 ‘쑥대머리’ 대목은 임방울이 도막소리로 불러 120만 장의

---

죽음에 대해 격렬하게 통곡한다. 그들은 상가에서 통곡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병에 걸린다고 믿기 때문이다. 발리인은 연인의 죽음에 대해서도 슬퍼하지 않는다. 그들은 상실의 슬픔에 빠지면 생명력이 약화되고 해로운 힘들의 먹이가 된다고 여긴다. 그래서 그들은 관심을 딴 데로 돌리고 즐겁게 행동하려 한다. 마샤 누스바움(2015), 위의 책, 263~265쪽.

24) 리사 펠드먼 배럿(2017), 앞의 책, 204~207쪽.

25) 리사 펠드먼 배럿(2017), 위의 책, 208쪽.

26) 감정 입자도(emotional granularity)는 감정 경험과 지각을 섬세하게 또는 거칠게 구성하는 능력을 말한다. 리사 펠드먼 배럿(2017), 위의 책, 568쪽.

27) 리사 펠드먼 배럿(2017), 위의 책, 209쪽.

유성기 음반이 팔릴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였다. 이 대목의 배경이 된 주요 감정 범주는 ‘이별의 슬픔’이라 할 수 있으나, ‘쑥대머리’는 연인과 이별한 상태에서 느끼는 슬픔이 다양한 감정 사례를 포함하며, 덩어리진 감정이 얼마나 잘게 쪼개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쑥대머리 귀신형용 적막옥방으 찬 자리에 생각나는 것이 임뿐이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 낭군을 보고지고 ① 오리정 정별 후의 일장서를 내가 못 봤으니, 부모 봉양 글 공부의 겨를 없어서 이러는가. ② 연이신혼(宴爾新婚: 새로운 혼인에 즐거움을 느낌) 금슬우지(琴瑟友之) 나를 잊고 이러는가. ③ 계궁 향아(계수나무가 있는 달나라 궁궐의 향아) 추월 같이 번뜻이 솟아서 비치고저. ④ 막왕막래 맥혔으니 앵무서(앵무새를 통해 전하는 사연, 편지)를 내가 어이 보며, 전전반측(輾轉反側)의 잠 못 이루니 호접몽(胡蝶夢)을 어이 꿀 수 있나. ⑤ 손가락의 피를 내어 사정으로 편지할까. 간장으 싹은 눈물로 임으 화상을 그려 볼까. ⑥ 이화일지춘대우(梨花一枝春帶雨: 배꽃 핀 한 나뭇가지 봄비 맞아 젖음)으 내 눈물을 뿌렸으면, 야우문령단장성(夜雨聞鈴斷腸聲: 밤비 속 떨어지는 방울 소리는 창자 끊는 소리)의 비만 와도 임으 생각. 추우오동엽락시(秋雨梧桐葉落時: 가을 비 맞은 오동잎이 우수수 떨어질 때)으 일만 떨어저도 임으 생각. ⑦ 녹수부용으 연 캐는 채련너(연꽃 핀 푸른 물에서 연뿌리 캐는 여인들. 중국 동남 오월 지역 여인들이 남편을 수자리 보내고 연뿌리를 캐면서 남편을 생각하는 슬픈 내용을 나타낸 구절)와 제룡망채엽(提籠網菜葉: 광주리를 갖고 있지만 빵잎 딸 생각을 잊음)으 빵 따는 여인들도 낭군 생각은 일반이지, 날보담은 좋은 팔자. 옥문 밖을 못 나가고 빵을 따고 연 캐것나. ⑧ 내가 만일으 입을 못 보고 옥중 고훈이 되거드면, 무덤 앞에 섰는 돌은 망부석이 될 것이요, 무덤 근처 있는 나무는 상사목(相思木)이 될 것이니, ⑨ 생전 사후 이 원통을 알아 줄 이가 뉘 있드란 말이야. 아이고 답답 내 일이야. 이를 장차 어쩔거나. ⑩ 혼자 퍼버리고 울음을 운다.28)

28) 김현룡, <김소희 바다 춘향가>, 『한국 판소리 정수』 2, 역락, 2019, 192~195쪽 참조.

이별의 슬픔은 처음에 ‘보고지고’라는 그리움으로 시작하여, ① 임의 처지에 대해 공감적으로 이해해 보려 하다가, ② 혹시 나를 버리고 결혼하여 나를 잊었을까 의혹을 품기도 하며, 그 의혹이 커져 입을 감시하듯 달처럼 솟아오르고자 하는 원망을 갖기도 한다. ③ 그러다 ④에서 옥에 갇혀 있으며 잠 못 드는 처지로 인해 임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라 위안도 가져본다.

⑤에서는 간헐 처지에서 입을 찾을 불가능한 희망을 품어보기도 보다가. ⑥에서는 계절이 바뀌어도 변치 않을 임 생각과 그로 인한 수심을 비의 이미지를 통해 강조한다. ⑦에서는 자신과 유사한 처지에 있던 여성들을 떠올리며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며 그들을 시샘하다, ⑧에서 죽어서도 변치 않을 결의를 드러내나, ⑨에서는 알아줄 이 없는 원통함에 절망한다.

최종적으로 춘향은 ⑩ ‘떠버리고 울음을 우는’ 행위를 하지만, ‘썩대머리’는 ‘울음=슬픔’이란 자동 연상되는 감정 이해를 넘어 슬픔의 범주 안에 그리움과 원망, 자탄과 자기위안, 부러움과 원통함, 희망과 절망 등 다양한 감정 사례들이 포함됨을 보여준다. 이는 자기의 감정 변화를 감지하거나 타인의 복잡미묘한 감정을 공감하는 데도 유용하다.

이처럼 감정에 언어적 형상을 부여하는 문학은 감정 경험을 섬세하게 구성하게 하는 감정 입자도를 높인다. 단어 학습이 감정 입자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sup>29)</sup> 감정 범주에 다양한 감정 형성 경로가 있고, 그로 인해 다채로운 감정 사례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고전문학을 향유하는 것은 감정능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감정 언어는 개념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29) 리사 켈드먼 배릿(2017), 앞의 책, 337쪽. 배릿은, “단어는 개념의 씨앗이 되고, 개념은 예측의 원동력이 되며, 예측을 통해 신체 예산이 조절되고 신체 예산에 따라 기분이 좌우된다. 따라서 당신의 어휘가 섬세할수록 당신의 뇌는 더 정밀한 예측을 통해 신체 수요에 알맞게 예산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문학은 감정적 사태의 전형을 구성할 뿐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지각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기법들을 개발했다. 특히 공감을 유도하는 판소리 문학은 구체적인 상상력을 유도하고 ‘유사신체반응’을 통해 공감도를 높이는 언어적 기법에 있어서 탁월하다.

심청이 거동 보아라. 밥 빌러 나갈 적에 흰 배 중의(中衣) 다님 매고, 말만 남은 흰 치마에 깃 없는 흰 저고리, 목만 남은 질보선에 청목 휘항 눌러 쓰고, 바가지 옆에 끼고 바람맞은 병신처럼 옆걸음 쳐 나갈 적에, 원산(遠山)에 해 비치고 건넌마을 연기일 제, 추적추적 건너가<sup>30)</sup>

어린 심청이 홀로 밥을 빌러 간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심청의 거동 묘사를 매개로 매서운 바람이 몰아쳐 걷기도 힘든 날씨에 옷을 제대로 갖추어 입지도 않고 ‘추적추적’ 가는 심청의 ‘몸’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되면, 청중은 자신의 신체 상황을 심청과 유사하게 만들며, 심청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연민의 감정을 갖게 된다.

또한 판소리문학은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과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하여 실감을 강화한다. “문을 활짝 열고 두 손 덩벽 잡고 “손 시럽지야.” 입의 대이고 훌훌 불며 “발도 차다” 어로만지고 혀를 끌끌 차며 눈물지어 “에고에고””(완판71장분)와 같은 장면은 생생한 행위 묘사를 통해 어린 딸을 염려하는 심봉사의 진심을 전하며 공감을 유발한다.<sup>31)</sup>

인간은 말로써 서로의 신체 예산을 조절하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sup>32)</sup> 몸

30) 김진영 외 편, <성창순 창본>, 『심청전』 2, 박이정, 1999, 337쪽.

31) 황혜진, 「공감과 연민을 위한 예술교육의 역할과 교육내용 -판소리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53, 한국고전문학회, 2018.

32) 리사 펠드먼 배럿(2021), 앞의 책. 예를 들어, 위협적인 사람에게서 혐오스러운 말을 들으면 뇌는 위협을 예측하고 다량의 호르몬을 혈류로 보내 신체 예산에서 귀중한 자원들을 탕진하게 되는데 최근 한국인들은 취업 이후 몇 달 동안 지속되는 신체 예산이 소진되어 온갖 병에 취약한 상태가 되었다.

에 미치는 언어의 힘은 아주 멀리까지, 혹은 먼 미래까지 뻗어나간다. 고전에서 위로받은 적이 있다면, 오래 전에 사라진 사람들에게서 신체 예산을 지원받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sup>33)</sup> 적어도 우리가 고전을 읽으며 공감하는 동안 옛사람들이 우리의 사회적 실재<sup>34)</sup>를 만드는 데 참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번스는 문학을 통한 뇌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책 읽는 기간 뇌를 측정하는 실험을 기획하였다. 장편소설을 나누어 읽히고 매일 뇌를 스캔하였다니 언어를 이해하는 데 관여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었다. 운동한 다음 날 근육이 활성화되듯이 읽기는 뇌를 변화시킨 것이다. 또, 촉각이나 운동 관련 자극을 처리하는 감각운동대의 활동 변화가 감지되었다.

그런데 언어 관련 뇌 활성화는 읽는 기간에만 감지된 데 비해 감각운동대의 변화는 읽기 완료 후에도 지속되었다. 우리는 독서를 통해 간접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있었다!<sup>35)</sup> 인물의 몸에 들어가 그 세계를 살아보는 체험을 제공하는 문학은 뇌의 시뮬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그 언어는 개념 형성을 촉진하여 우리가 ‘느껴야 할’ 감정을 만들어낸다.

한편, 타인의 감정에 접속하는 공감은 타인의 처지에 대한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누스바움은 상상력을 감정의 인지적 요소로 덧붙이기도 하였다.<sup>36)</sup> 평생에 걸쳐 우리의 상상력과 공감능력을 훈련·발달시키는 것

33) 리사 펠드먼 배럿(2021), 위의 책.

34) 사회적 실재(social reality)는 어떤 것이 실재한다는 점에 대한 특정 집단 사람들의 공통적 견해를 의미한다. 이것은 언어를 통해 공유될 수 있다.

35) 그레고리 번스(2024), 앞의 책, 268~274쪽.

36) 마사 누스바움(2015), 앞의 책, 132~137쪽. 누스바움에 따르면, 감정은 대상에 대한 풍부하고 밀도 높은 지각을 포함하는데, 그것은 극히 구체적이며 상세한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이는 감정이 상상(력)과, 그리고 상상 속에서 사건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상은 보다 추상적인 다른 판단의 상태와 구별된다고 한다. 그리고 누스바움은 감정의 강렬함은 상상의 구체성에서 비롯됨을 강조하였다.

은 바로 이야기와 노래이다. 그래서 문학은 “공감 습관 형성을 유도하는 약물”<sup>37)</sup>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타인에 대한 상상과 공감은 문학능력에 한정되지 않는다.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상상과 공감을 통해 나의 뇌가 타인의 뇌와 연결되어 개념이 공유되고 전송되며, 화폐와 같이 사회 성원들의 약속과 믿음을 기초로 하는 사회적 실재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문학은 화폐 이상의 위력이 있다고 할 만하다.

사회적 실재를 형성하는 문학의 힘을 보여주는 것 중 하나로 ‘마스터플롯’을 들 수 있다. ‘마스터플롯’은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며 우리의 근저에 위치한 가치, 희망 그리고 공포에 대해서 말하는 스토리들을 말한다. 에벗은 <신데렐라>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하며, 이런 마스터플롯은 서사를 구조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대한 감정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다.<sup>38)</sup>

우리가 예부터 전승해 가르치고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하는 한국의 고전문학 역시 마스터플롯 역할을 한다. 마스터플롯은 인간사에 대한 우리의 세계 모형을 만들고 예측을 조정하는 문화적 기준이 된다. 에벗은 모든 민족문화가 저마다 지니는 마스터플롯이 있다고 하였지만, 순서상 문화적 연결고리인 마스터플롯이 있기 때문에 민족문화가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

우리는 고전문학을 읽으면서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작품 속 인물이나 시적자아와 유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보다 중요한 문학적 감정의 작용은 그들의 감정을 이루는 인지적 요소인 가치 지향과 삶의 기획을 본떠 우리의 세계 모형을 빚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인물과 함께 움직이며 느끼다가 결국 인물 ‘처럼’ 느끼게 된다.

나아가, 고전문학은 마스터플롯으로서 반복 경험되다가 우리 내면의 플롯 짜는 모델이 되기도 한다. 인간사의 문제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심리적 도식인 ‘자기서사’도 우리 내면이 품은 플롯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플롯에

37) 자밀 자키, 정지인 역, 『공감은 지능이다』, 심심, 2021, 180쪽.

38) H. 포터 에벗, 『서사학 강의』, 우찬제 외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0, 99~101쪽.

의한 예측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수정을 거듭하여 개선되거나 플롯 자체가 변모하는 것이 문학치료학에서 말하는 (내면 문학의) ‘치료’이다.

예측과 개념 구성으로 작동하는 뇌가 경험을 통해 재배선된다면, 감정 영역을 포함한 우리의 변화는 과거의 경험을 다르게 의미화하거나 경험을 바꿈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고전문학을 현재와 관련해 계속 새롭게 읽고 해석하며 의미를 찾으려는 고전문학 연구자의 노력도 우리의 과거 경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오늘의 우리를 갱신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감정은 선천적인가, 학습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며 감정이 어떻게 사회의 형성·유지·변화에 관여하며, 그 과정에서 문학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감정은 개인 내면의 정동을 해석하기 위한 개념이지만 언어를 통해 다른 뇌들과 연결된다. 문학은 감정 입자도를 높이며, 상상력을 매개로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고전문학은 마스터플롯 역할을 하며 개인과 집단의 세계 모형을 만들고 공유된 개념으로 공통적 감정을 구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런 고전문학이 새로운 경험과 감정 개념을 만들 수 있겠는가? 박지원은, “하늘과 땅이 아무리 장구해도 끊임없이 생명을 낳고, 해와 달이 아무리 유구해도 그 빛은 날마다 새롭다.”<sup>39)</sup> 했다. 즉, 고전은 오래되어도 새로울 수 있다는 뜻이다.

또, 그는 “썩은 흙에서 버섯이 무럭무럭 자라고, 썩은 풀이 반디로 변하기도 한다.”<sup>40)</sup>라고 하며 ‘법고창신(法古創新)’을 독려했다. 고전문학의 감정을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하려는 우리는 감정 연구자인 동시에 우리 시대에 새로울 수 있는 문화적 감정의 설계자이기도 하다. ‘오래된 미래’를

39) 박지원, <초정집서(楚亭集序)>, 신호열·김명호 역, 『연암집』 7, 2004,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40) 박지원, <초정집서(楚亭集序)>, 신호열·김명호 역, 『연암집』 7, 2004,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실증하는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 5. 결론

본 연구는 감정에 대한 기존의 통념, 즉 감정은 본능적이며 이성보다 열등하고, 보편적이고 고정된 반응이라는 견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감정을 ‘물질[신체] 기반의 구성된 개념’으로 재정의하는 시도를 하였다.

먼저 뇌과학자인 리사 펠드먼 배럿의 구성된 감정 이론을 이론적 중심축으로 삼아 감정이 어떻게 뇌의 예측과 신체 변화, 개념적 분류를 통해 형성되는지를 설명하였다. 뇌는 생존을 위해 신체 예산을 관리하며, 감각 정보를 시뮬레이션하고 과거의 경험을 통계적으로 참조하여 신체적 정동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때 감정 개념은 정동을 해석하는 틀이 된다.

한편, 감정은 이성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속성을 지닌 판단 작용이며, 나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감정 철학자인 누스바움에 따르면, 감정은 ‘가치에 대한 판단’이자, 통제 불가능한 외적 대상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존재론적 반응이다. 따라서 감정은 결코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지적이고 실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배럿과 누스바움은 탐구 영역이 다른 연구자들이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감정에는 인지적 속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배럿이 말하는 감정 개념은 정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할지 설명하며, 우리를 행동하게 한다. 정동에는 아직 쾌, 불쾌와 같은 지표밖에 없으나, 이를 해석하기 위해 동원되는 감정 개념에는 누스바움이 말하는 감정의 지력, 즉 외적 대상의 가치에 대한 기쁨과 좋은 삶에 대한 기획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감정은 사회적·문화적으로 구성된 개념으로서 언어를 통해 타인

과 공유되고 전승된다. 감정에는 생물학적 지문이 없지만, 문화적 지문은 있다 할 것이다. 문화는 감정의 어휘를 제공하고, 다양한 감정 사례들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정동을 섬세하게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문학은 감정 사례의 보고이자, 감정의 인지적 구성에 깊이 관여하는 감정 교육의 자료가 된다.

문학은 감정을 가장 첨단적으로 다루는 양식이다. 박지원의 문학은 감정 개념의 작동 방식을 뇌과학 이론보다 선취한 방식으로 보여주며, 판소리문학은 감정을 다채롭게 형상화함으로써 감정 입자도를 높이고, 청중과의 감정적 상호작용을 유도해왔다. 또, 문학은 인물의 내면을 따라가는 감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독자나 청자의 감정 능력을 발달시키며, 사회적 실재와 문화적 감정 구조를 교육하고 재편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결론적으로, 감정은 신체적 토대를 가진 개념적 구성물이며, 문학은 그 감정 개념을 조직하고 재구성하는 문화적 실천이다. 감정은 더 이상 설명되지 않는 내면의 폭발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고 세상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식이며, 문학은 그 해석의 장이다. 따라서 감정의 본질과 감정 교육, 그리고 문학의 역할을 함께 사유하는 작업은 우리 시대의 인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고전문학은 낡은 유산이 아니라, 감정을 구성하는 ‘오래된 미래’가 될 수 있다. 감정 개념을 성찰하고 감정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문화적 자원으로써 고전문학은 여전히 유효한 전통문화이다. 우리가 고전문학을 오늘 다시 읽고 쓰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안에서 우리 시대의 감정을 새롭게 구성하고 사유할 수 있는 미래의 감정 언어를 찾기 위함이 아닐까 한다.

## 참고문헌

- 김진영 외 편, <성창순 창본>, 『심청전』 2, 박이정, 1999, 1~352쪽.
- 김현룡, <김소희 바다 춘향가>, 『한국 판소리 정수』 2, 역락, 2019, 1~434쪽.
- 박지원, <영처고서(嬰處稿序)>, 신호열·김명호 역, 『연암집』 7, 2004,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 박지원, <능양시집서(菱洋詩集序)>, 신호열·김명호 역, 『연암집』 7, 2004,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 박지원, <환희기후지(幻戲記後識)>, 이가원 역, 『열하일기』, 1968,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 박지원, <초정집서(楚亭集序)>, 신호열·김명호 역, 『연암집』 7, 2004,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 이해조, 『자유중』, 권영민 외 편, 『한국신소설선집』 5,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1~441쪽.
- 그레고리 번스, 홍우진 옮김, 『나라는 착각』, 흐름출판, 2024, 1~360쪽.
- 리사 펠드먼 배럿, 최호영 옮김,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생각연구소, 2017, 1~704쪽.
- 리사 펠드먼 배럿, 변지영 옮김,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더 퀘스트, 2021, 1~243쪽.
- 마샤 누스바움, 조형준 옮김, 『감정의 격동: 감정에 대한 철학적 고찰』, 새물결, 2015, 1~527쪽.
- 사단법인 전국유료실버타운협회, 포푸리사 편저, 이지수 옮김,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노인들의 일상을 유쾌하게 담다』, 포레스트북스, 2024, 1~128쪽.
- 윌 스트, 문희경 옮김, 『이야기의 탄생』, 흐름출판, 2020, 1~334쪽.
- 자밀 자키(Zaki, Jamil), 정지인 옮김, 『공감은 지능이다』, 심심, 2021, 1~475쪽.
- 황혜진, 「공감과 연민을 위한 예술교육의 역할과 교육내용: 판소리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53, 한국고전문학회, 2018, 61~97쪽.
- H. 포터 애벗, 우찬제 옮김,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1~464쪽.

ABSTRACT

Emotion and Classical Literature from a Neuroscientific Perspective

Hwang, Hye-jin

This study reexamines the traditional view of emotions as instinctive and irrational reactions, and instead interprets them as cognitively and culturally constructed phenomena grounded in the physical body. Drawing on Lisa Feldman Barrett's theory of constructed emotion, this paper explains that emotions are not innate or universal, but rather conceptual interpretations of affect formed through the brain's predictive functions and interoceptive networks. Emotions are thus learned and shaped through experience and conceptual knowledge.

In addition, based on Martha Nussbaum's philosophy of emotion, this study argues that emotions involve cognitive operations such as value judgments and evaluations, and calls into question the dichotomy between emotion and reason. With this theoretical foundation, the works of Park Ji-won and Korean pansori literature are analyzed to demonstrate how classical literature has refined the language of emotion, enabling the social sharing and cultivation of emotional concepts.

Emotions are cognitive constructs generated through the interplay of the body, brain, language, and culture, and literature functions as a site for organizing and transmitting such emotions as forms of social practice. By examining the intersection between emotion theory and classical literature, this study seeks to shed new light on the humanistic interpretation of emotion and the educational potential of classical literature in shaping emotional understanding.

**Key Words** Constructed Emotion, Emotion and the Body, Emotion and Reason, Emotion and Culture, Emotional Granularity, Emotional Education

논문투고일: 2025.07.14.

심사완료일: 2025.08.11.

게재확정일: 2025.08.13.